

고전소설 대중화 양상 연구*

강문종**

<차례>

1. 서론
2. 고전소설 인식 양상
3. 강연과 영상자료를 통한 대중화
4. 출판물 통한 대중화
 - 1) 이미지화
 - 2) 역사적·문화적 사실과의 연결
5. 결론

<국문초록>

첫째, 연관 검색어 분야에서 한국 고전소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출향전’ 정도로 매우 빈약하다. 이미지 역시 교육자료를 제외하면 『고전소설 오디세이』 정도가 첫 화면에 등장하고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교육자료를 제외하면 대중화된 영상은 등장하지 않는다. 관련 뉴스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전소설 관련 도서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관의 출판물 정도가 언급되었다. 특히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8월 16일까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고전소설 관련 도서는 없었다. 둘째, 서점에서는 이미 고전소설 이론서 및 대중서가 모두 서가에서 빠져 있었다. 고전소설이라는 키워드가 대중들의 시선에 조금씩 지워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고전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정도가 낮았다. 고전소설 독서량은 매우 부족하고, 독서 경향은 단순하였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고전소설 관련 대중서와 강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셋째, 임치균의 조선시대 왕실소설 관련 강연은 수강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예덕선생전>을 대상으로

*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제작된 동영상인 경우 고전소설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생활상에 더욱 주목하고 있었다. 넷째, 이후남의 『요망하고 고안 것들』을 통하여 흥미로운 요괴와 그 요괴의 이미지를 통하여 다양한 고전소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등장한다. 이것은 고전소설의 이미지화를 바탕으로 캐릭터 개발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신병주·노대환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에 대한 온라인 상의 반응들을 통하여 고전소설과 조선시대 역사·문화적 현상과의 연결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고전소설 전공자가 대중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았다. 고전소설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영상 제작, 대중서 출판, 강연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고전소설, 대중화, 유튜브 영상, 연관 검색어, 대중서 출판, 강연 프로그램

1. 서론

이 글은 현시점에서 고전소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양상과 정도를 밝히고 고전소설의 향유 지평을 넓히기 위한 대중화 작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고전소설을 텍스트로 한 문화콘텐츠 제작과는 구분하여 고전소설 전공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중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고전소설에 대한 각종 인식의 양상과 정도를 측정할 사례가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대중들이 고전소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결과에 따라 콘텐츠화와 대중화의 전략과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세대별 샘플을 만들고 설문지를 제작하여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온라인에 나타난 각종 인식의 양상과 더불어 서점에서 관련 도서의 전시 현황과 대중강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2022년을 살아가는 한국인이 고전소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리할 것이다.

고전소설을 텍스트로 한 각종 콘텐츠 제작 관련 연구와는 달리 사실 고전소설에 대한 열악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고전소설 전공자들의 대중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분야는 1990년대 말부터 꾸준히 검토되어 왔다.¹⁾ 그러나 고전소설의 대중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임치균에 의해서이다. 임치균은 대중화의 전제조건과 방안을 검토하면서 제도권 교육 현장에서 고전소설을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대어 번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²⁾ 이어 이민희는 2010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을 검토하면서 대중화 및 일반 독자와의 소통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이 연구 역시 대중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연구사 정리에 해당하며 그마저도 교육 관련 연구와 콘텐츠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³⁾ 이후 한길연에 의해 고전소설 대중화 방안은 매우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이 연구 역시 디지털 매체와의 상관을 분석하고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에 맞춰져 있다.⁴⁾ 최근 정혜경 역시 국문장편소설의 출판과 대중화 전략을 고찰하였다. 정혜경은 이 연구에서 고전소설 원문의 현대화 즉 교주본과 현대어역 출판 중심으로 전략을 제시하였다.⁵⁾ 그 외에도 국문장편 고전소설 감상사전 편찬을 기획

1) 정우봉, 「국문학 연구의 전문성과 대중성」, 『한국학』 22(2),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설성경, 「고전문학 연구의 대중화」, 『돈암어문학』 12, 돈암어문학회, 1999.

2) 임치균, 「고전소설의 대중화 문제」, 『한국학』 25(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3) 이민희, 「2010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고전소설의 대중화 및 일반 독자와의 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24, 국문학회, 2011.

4) 한길연, 「고전소설 연구의 대중화 방안-디지털 매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語文學』 115, 한국어문학회, 2012.

하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 중 하나로 ‘대중화의 토대 마련’을 설명한 엄기영의 연구도 있었다.⁶⁾

이와 같이 고전소설의 대중화 방안은 대부분 디지털 매체 관련 콘텐츠 제작과 번역의 분야에 맞춰 연구되어 왔다. 디지털 매체 관련 콘텐츠 제작 역시 고전소설의 대중화 작업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전소설 혹은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이 분야에 직접 참여하거나 현실적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강하다. 전공자들은 이러한 매체 관련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이 고전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임치균과 정혜경의 논의 즉 고전소설의 현대어역 출판 전략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원전의 현대어 번역은 대중화를 위한 전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번역 자체를 대중화로 판단하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필자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계승하고, 고전소설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양상을 검토한 후 고전소설 전공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되는 대중강연, 간단한 유튜브 영상 제작, 대중서 출판 등의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대중강연인 경우 직접 주관하거나 강연자로 참여한 경우를 사례로 뽑았으며, 영상 제작인 경우 제작에 직접 참여한 유튜브 영상과 이에 대한 반응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대중서 출판인 경우 가장 긴 시간 주목을 받고 있는 신병주·노대환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과 최근 고전소설의 대중서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후남의 『요망하고 고얀 것들』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사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전공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5) 정혜경,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전략」,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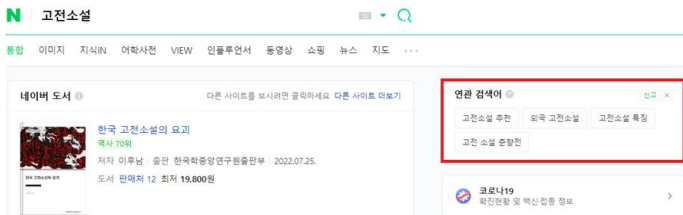
6) 엄기영, 「국문장편 고전소설 연구 및 대중화의 토대 마련을 위한 한 걸음: 국문장편 고전소설 감상사전 편찬에 대하여」, 『한국문화연구』 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있는 고전소설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고전소설 인식 양상

한국인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포털 사이트 중에 하나인 네이버⁷⁾에서 고전소설을 키워드로 검색할 경우 흥미롭지만 암울한 상황이 전개된다.⁸⁾ 물론 이는 오프라인에서 설문조사와 병행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연관 검색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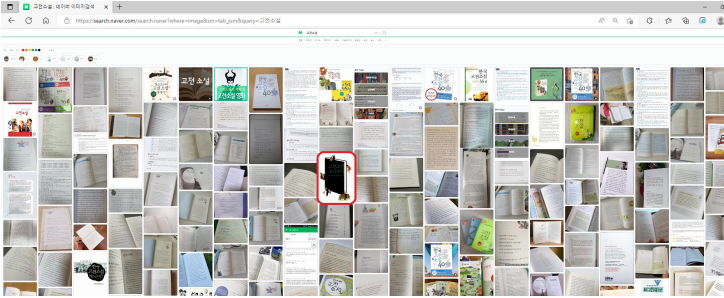


위의 이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관 검색어인 경우 ‘고전소설’이라는 키워드를 제외하면 ‘추천’, ‘외국’, ‘특징’, ‘춘향전’ 정도다. 이 중 한국 고전소설과 직접적인 관련은 ‘춘향전’이 유일하다. 관심도를 반영할 수 있는 어휘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네이버 ‘종합’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는 이후남이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서로 출판한 『한국 고전소설의 요괴』라는 책이다. 이는 주목받는 주제임에 분명하지만, 기관의 보도자료 배포와 가장 최근에 출판된 고전소설 관련 책으로 분류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7) 대중화의 주체인 기성세대들에게 네이버는 한 때 ‘네박사’로 불릴만큼 활용도가 높았으며, 이는 검색의 장으로서 현재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포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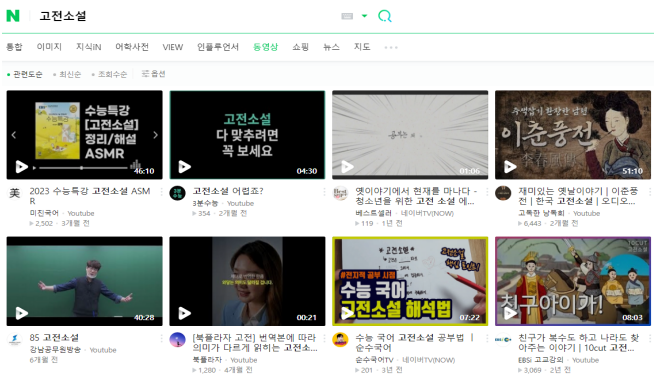
8) ‘다섯 번째 관련 도서’ 분야까지는 2022년 8월 16일 04시 20분 전후를 기준으로 함.

둘째, 연관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대부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추천 작품 모음집과 학습 자료 관련 이미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만 가운데 붉은 선으로 표시한 이미지인 경우 임치균의 『고전소설 오디세이』이며, 이 도서인 경우 고전소설의 대중화를 지향하면서 『역사평설』의 연재 과정을 거쳐 35편의 작품을 대중적으로 풀어낸 결과물이다.⁹⁾

셋째, 연관 동영상을 살펴보았다.



위의 이미지는 네이버에서 고전소설로 검색한 후 동영상 카테고리를 클

9) 임치균, 『고전소설 오디세이』, 글항아리,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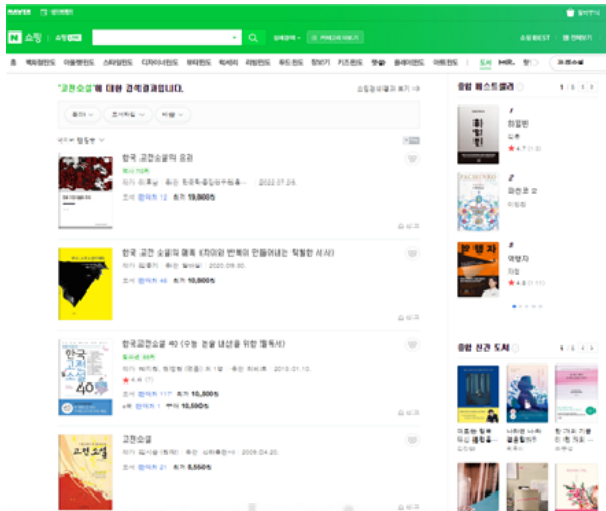
릭하고 ‘관련도순’으로 선택한 후의 이미지다. 여섯 번째 이미지를 제외하면 역시 모두 제도권 교육용 동영상이다.

넷째, 관련 뉴스 분야를 살펴보았다.



이 분야에서도 ‘관련도순’으로 조사하였다. 역시 최근에 출판된 이후남의 『한국 고전소설의 요괴』 관련 뉴스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최근 출판 소식을 제외하면 한국 고전소설 관련 뉴스는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관련 도서 분야를 살펴보았다.





오프라인인 경우 특정 분야의 인식이 가장 잘 반영된 곳이 바로 서점이다.

서점 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이다. 왼쪽 이미지 중에 첫 번째 이미지는 교보문고의 ‘문학이론’ 관련 서가이다. 여기에 고전소설과 관련된 이론서는 겨우 1종이 있는데, “조동일의 『소설의 사회

사 비교론』 1과 3”¹¹⁾이다. 두 번째 이미지는 ‘한국문학’ 관련 서가이다. 아래 두 칸이 고전문학 분야인데, ‘한시/시조’, ‘설화/시가문학’, ‘속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고전문학 분야가 시문학과 구비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고전소설 분야는 별도로 없다.¹²⁾

상업적으로 창작물이 아닌 문학 관련 서적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서점 역시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이론과 한국문학 전체를 진열하는 공간 역시 각각 서가 한 줄 정도에 지나지 않고 문학이론인 경우 고전소설 분야에서는 20년 전에 출판 1종의 도서 외에는 없으며, 한국 고전문학 관련 서적들 중 고전소설 관련 서적은 단 한 권도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¹³⁾를 해 보았다. 고전소설의 대중화를 위해서 대중화의 대상인 ‘대중’이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전소설 관련 대중강연을 듣는 참여자 중에는

11)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1과 3, 지식산업사, 2001.

12) 필자가 2022년 8월 14일 교보문고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고 사진으로 찍었다.

13) 제한된 설문 조사 결과임을 밝힌다. 특히 이 설문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보다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질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전소설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하나의 사례임을 밝힌다.

학생, 대학교수, 자영업자, 전업주부까지 실로 다양하다. 필자는 중등교육 현장과 대학교육 현장을 대중화의 현장에서 제외시켰다. 중등교육 현장(중학교와 고등학교)과 대학인 경우 지속적으로 학습이 진행 중이고 이 중에서는 향후 고전문학 분야 전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조사 대상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은 모두 제외하였다.

필자가 주관 교수의 자격 혹은 직접 강연하는 강연프로그램 현장을 활용하였다. 2022년 8월 23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 대학 국제교류업무 부서장 및 실무자 100여 명이 참여한 ‘2022 KAFSA/KAFSA 하계 총회 및 컨퍼런스’에서 필자는 고전산문을 대상으로 콘텐츠화 한 ‘조선시대 생계형 범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70건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37건을 회수한 내용을 분석하였다.¹⁴⁾ 우선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20명 여성이 17명이었으며, 세대와 주요 생활 지역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선택한 전공 분야는 아래 표와 같았다.

세대		생활 지역		전공 분야	
20대	1	서울·경기	14	인문학	11
30대	7	영남	8	사회과학	4
40대	10	호남	5	경제·경영	6
50대	18	충청	7	행정·사무	4
60대	1	강원	1	해양과학	2
		제주	2	공학	4
				수의학	1
				문화예술	2
				기타	3

14) 좀 더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한계로 조사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타당한 샘플을 선택하였다.

세대가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설문 조사에 참여하였고 이들의 주요 생활 지역 역시 수도권이 가장 많지만, 인구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전공분야 역시 인문학, 문화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하다. 따라서 대학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한다는 특수성은 있으나 비전공 대중들로 분류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세대·성별·거주지·전공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고전소설의 인식을 조사하는 샘플로서는 타당해 보인다. 이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항목으로 고전소설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고전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 정도를 물었다.

매우 많다.	많다.	보통이다.	조금 있다.	관심 없다.
	8	17	7	5

우선 매우 많다고 답한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많다’고 답한 사람이 21%라는 사실은 고전소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반응이 약 21%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관심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약 32%임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전소설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인문학 전공으로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이 분포한 샘플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다소 심한 수준이다.

두 번째로 고전소설 관련 강연 참여 의사를 물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3	15	15	1	3

고전소설 관련 관심도에 비해 강연이 있을 때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48%로 약 10%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3명으로 나타난 것은 전반적인 인식에 비해 고전소설에 대한 강연 콘텐츠는 어느 정도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에서 고전소설의 수요를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제목과 내용을 알고 있는 고전소설 작품 수를 물었다.

없다.	3 작품 이하	5 작품 이하	10 작품 이하	10 작품 이상
	17	13	6	1

5 작품 이하가 약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3 작품 이하로 선택한 경우가 무려 약 45%에 달한다. 이는 다소 아쉬운 결과다. 10 작품 이상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단 1명에 지나지 않는다. 고전소설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라고 답한 비율이 21%라는 사실을 고려해 보더라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고전소설을 많이 접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네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고전소설 작품을 순서대로 5 작품 이하로 적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번호 ¹⁵⁾	선호도에 따른 순서
1	구운몽, 홍길동전, 심청전
2	허생전, 홍길동전, 흥부전, 토끼전
3	홍길동전, 열하일기(?)
4	홍길동전, 심청전, 춘향전, 토끼전
6	춘향전, 허생전, 흥부전, 박씨전, 광문자전(운영전, 홍길동전, 전우치전, 사씨남정기)
7	구운몽, 허생전, 화황계
8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 장화홍련전, 박씨전(전우치전)
9	조선왕비실록 등
11	심청전, 장끼전, 흥부전, 사씨남정기, 홍길동전
12	홍길동전, 구운몽, 토끼전, 심청전, 박씨전
13	춘향전, 별주부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공쥐팔귀(홍길동전)

14	사씨남정기, 구운몽, 홍길동전, 허생전, 양반전
15	홍부전, 춘향전
16	허생전, 호질,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
17	규중칠우쟁론기 > 구운몽 > 홍길동전 > 심청전 > 금오신화
18	홍길동전=춘향전, 구운몽=금오신화
20	구운몽
22	춘향전, 구운몽, 홍길동전
25	춘향가, 홍부가, 수궁가
26	춘향전, 홍길동전, 구운몽
28	홍길동전, 춘향전, 심청전
29	홍길동전, 규중칠우
31	춘향전, 홍길동전, 홍부전
32	춘향전, 홍길동전, 홍부전
33	홍길동전, 춘향전, 장화홍련전, 홍부전
34	춘향전, 홍길동전
35	홍길동전, 홍부전
37	홍길동전, 춘향전, 허균전, 사씨남정기, 구운몽

우선 5 작품을 모두 적은 응답자가 9명으로 약 24%이고, 한 작품도 쓰지 못한 응답자 역시 무려 9명인 약 24%이다. 동일한 비율로 분석되었지만, 단 한 작품도 적지 않은 응답자가 24%라는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조선완비실록¹⁶⁾’과 ‘열하일기’, ‘규중칠우쟁론기’ 등을 소설로 인식한 것 역시 고전소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응답에서 선호도 1위는 ‘홍길동전’이며 약 27%에 해당하는 10명이 선택하였다. 그 외에 ‘춘향전’을 선택한 응답자가 8명으로 약 ‘21%’에 해당한다. 응답자에 한해서만 살펴보면 ‘홍길동전’과 ‘춘향전’을 선택한 비율이 약 ‘64%’에 해당한다. 이 두 작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섯 번째로 완독한 고전소설이 있다면 적어달라고 물었다.

15) 번호는 설문지 수거 순서대로 부여한 번호이다. 이하 동일.

16) 응답자가 기입한 명칭 그대로 적었다.

번 호	완독 작품
4	홍길동전, 심청전, 춘향전, 토끼전
6	춘향전, 허생전, 흥부전, 박씨전, 광문자전(운영전, 홍길동전, 전우치전, 사씨남정기)
7	구운몽, 허생전, 화황계
8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 장화홍련전, 박씨전(전우치전)
11	구운몽, 춘향전
14	홍길동전
16	허생전, 호질, 홍길동전, 구운몽, 사씨남정기
20	구운몽
22	춘향전, 구운몽, 홍길동전
26	구운몽, 춘향전
28	홍길동전
29	홍길동전
31	춘향전, 흥부전
32	사씨남정기
35	홍길동전, 흥부전

설문 응답자 37명 중에 한 작품 이상 완독한 응답자는 15명으로 약 40%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좋아하는 작품을 순서대로 적은 응답자들 중에서 그 작품을 전혀 읽지 않은 응답자 역시 11명으로 28명 중 약 39%에 이른다. 특히 11번·32번 응답자인 경우 가장 선호하는 작품과 실제 완독한 작품이 달랐다. 14번인 경우 선호하는 5 작품 중 완독 작품은 ‘홍길동전’ 한 작품에 지나지 않으며, 26번 응답자는 3 작품 중 2 작품, 28번 응답자는 3작품 중 1 작품, 29번 응답자는 2 작품 중 1작품, 31번 응답자는 3 작품 중 2 작품만을 읽는 등 대체로 고전소설을 완독했다는 응답자는 다양한 작품을 접하지 못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답은 17번 응답자이다. 이 응답자는 50대 남성이고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자신의 전공을 인문학으로 선택하였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없음)대부분 수업시간에 일부분만 학습함”으로 적었다. 제도권 교육 현장에서 고전소설 교육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표

현하고 있다. 고전소설 작품을 직접 읽기보다는 주로 줄거리와 내용 요약
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개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읽지 않을
경우 고전소설을 읽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을 추정하게 해 준다.

결국 이번 고전소설 인식 조사에 참여한 37명이 완독한 작품은 ‘심청전’,
‘춘향전’, ‘토끼전’, ‘홍부전’, ‘홍길동전’, ‘사씨남정기’, ‘구운몽’, ‘허생전’, ‘광
문자전’, ‘호질’ ‘박씨전’, ‘운영전’, ‘전우치전’, ‘화왕계’, ‘장화홍련전’, 등 15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

여섯 번째로 고전소설을 읽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물었다.

번호	어려운 부분
1	고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8	그 당시 용어들이 현대에 해당하는 의미와 다른 뉘앙스일 때
9	한자어 해석 부족
11	난해한 단어
12	어려운 고전 용어의 해석이 어려웠음
13	한자에 대한 어려움, 해석에 대한 어려움
15	속뜻을 알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임경업전 바닷가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과정 등
16	고어체
19	생활언어(단어)
20	한자어가 많아 읽을 때 이해의 흐름도가 중간에 끊김,
22	고어 이해의 어려움
26	어휘에 대한 낯설
29	시대적 배경 이해가 어려움
32	문체와 단어

15번과 29번 응답자를 제외하면 이 질문에 답한 모든 응답자들은 고전
소설의 가독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현대어로 번역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어휘나 문장 문체 등이 낯설고 접근
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글소설이든 한문소설이든 현대인들
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반증하고 있다.

즉, 고전소설 대중화의 기반은 곳 훌륭한 번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전소설의 대중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번호 ¹⁷⁾	완독 작품
1	흥미 유발 필요
2	대중의 흥미 유발 필요
3	재미있는 강의 개발 및 유튜브 홍보
6	뮤지컬로 만들어 보급한다.
7	고전소설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도 제고
8	적절한 번역 작업과 현대적 해석 작업
9	인문교육 사업
11	이해하기 쉽게 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12	고전소설에 대한 언론 노출 및 홍보 등
13	접근이 쉽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친숙함이 필요
14	우리나라의 고전소설의 매력이 소극적이라는 점
15	고전소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
16	고어체를 현대 표준어로 표현하되 느낌이 살 수 있도록 배경 설명
18	컨텐츠 개발, 웹 미처 어플 활용
19	홍보
20	한자어의 한글화, 이에 따른 문장 검토
21	대중강연과 영화 등 현대 미디어 활용 보급
22	전문가의 강연 및 대중매체 노출
26	어휘에 대한 낯설
28	쉽고 재미있게 고전소설을 전달할 수 있도록
29	시대적 배경 소개
30	전달 매체의 다양화가 필요함.
32	다양한 콘텐츠로 재탄생
33	드라마 제작
34	고전소설이 무엇인지 자체를 홍보하는 것이 더욱 필요함
35	현대 사회와 연계된 사회상 비교
36	고교 수업으로만 접하는 경우가 많아 어렵고 거리감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친숙하게 느끼도록 매체를 통한 특강이 대중화에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17) 번호는 설문지 수거 순서대로 부여한 번호이다. 이하 동일.

설문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고전소설 대중화 방안은 크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번역 및 해당 작품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중문화 및 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대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영상화와 흥미로운 강연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흥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의 간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대중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고전소설의 향유층을 넓히는 방법도 대중화에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대중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 고전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수준 높은 강연상품으로 만드는 것 역시 고전소설의 향유 지평을 넓히는데 좋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특히 판화와 그림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고전소설을 문자 텍스트와 오디오로만 감상하였다. 이를 영상과 이미지로 전환하고, 역사와 생활문화 콘텐츠와 연결시킨다면 고전소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고, 흥미성과 관심은 곧 고전소설에 대한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며 대중화의 길로 접을 들 것이다.

3. 강연과 영상자료를 통한 대중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중들의 고전소설 인식 양상 및 정도는 모든 면에서 대단히 낮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고전소설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중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고전소설 연구자의 입장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 가장 쉽게 떠오르는 분야가 바로 대중강연일 것이다. 앞서 인식 양상을 검토할 때 보았듯이 현대인들은 조선시대 고전소설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중강연에 대한 수요는 나름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기반을 조성

하기 위하여 한 가지 사례를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 왕실 소설을 대상으로 한 대중강연이다.

이 자료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이 주관하는 인문학최고지도자과정 중 5월 25일(수) 19:00~21:00에 이루어진 임치균 교수의 ‘조선 왕실의 소설’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분석한 것이다. 우선 강연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주제	강연 목차 구성	활용한 주요 작품
조선왕실의 소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소설의 존재 형태 왕실 남성의 소설 향유 왕실 여성들이 읽은 소설 왕실 소설의 외형적 특징 왕실 소설의 내용적 특징 대중과 소통하는 왕실 고전소설 	〈소현성록〉, 〈재생연전〉, 〈낙천등운〉, 〈완월회맹연〉, 〈보은기우록〉, 〈영이 록〉, 〈한조삼성기봉〉, 〈옥란기연〉, 〈범 문정충절언행록〉, 〈소현성록〉, 〈임씨 삼대록〉, 〈유이양문록〉, 〈명행정의 록〉, 〈하진양문록〉, 〈화산기봉〉, 〈정세 비태록〉, 〈쌍성봉효록〉

‘고전소설의 존재 형태’에서는 필사본, 방각본, 구활자본, 세책본 그리고 구전유통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왕실 남성의 소설 향유’에서는 왕실 관리들과 왕 그리고 왕비와 세자 등이 어떻게 고전소설을 향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왕실 여성들의 읽은 소설’에서는 낙선재본의 총체적인 모습과 윤백영의 이야기 중심의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왕실 소설의 외형적 특징’에서는 형태서지적 특징, 연작 및 파생작과 같은 창작의 양상, 세책가로 필사를 의뢰하여 이루어진 필사의 형태 및 분량 그리고 이본 현황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왕실 소설의 내용적 특징’에서는 가문소설적 특징, 의례 및 계몽성, 색과 덕의 문제, 남녀 등장인물의 욕망 실현 양상, 교양서로서의 특징, 앵혈 모티프, 늑혼 모티프, 개용단 및 미혼단과 같은 묘약 모티프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왕실 고전소설’에서는 강연자(임치균 교수)가 중심이 되어 교주와 현대어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왕실의 소설’ 시리즈의 소개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강연에 대한 수강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앞서 고전소설 인식을 다루면서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30명의 수강생 중에 1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의식 함양	프로그램 적합도	추천 여부	전반적 평가
매우 그렇다: 16 그렇다: 1 보통이다: 1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15 그렇다: 3 보통이다: 0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다: 16 그렇다: 2 보통이다: 0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지 않다: 1	매우 만족: 15 만족: 2 보통이다: 1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기타(서술)	흥미롭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 2학기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에 빠져드는 듯. 색다른 경험이었다.		

대중강연의 특성상 만족도에서 콘텐츠와 강연자의 전달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앞에서 고전소설의 인식 양상과 정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강자들은 고전소설의 제목 몇 개 정도만 알 정도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강연에서는 수강자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작품들로 강연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하면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대중강연에 대한 수요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선할 점 혹은 느낀 점을 적어달라는 질문에는 모두 만족스러운 표현으로 적었다. 한 가지 사례로 일반화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 강연에 대한 대중들의 수요는 적지 않으며 고전소설 수용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강연의 활성화는 필요해 보인다.

둘째, 〈예덕선생전(穢德先生傳)〉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 제작이다.

이 영상은 tvn의 자회사인 유튜브 채널 〈사피엔스〉의 ‘역사 읽어드립니다.’ 코너로 제작하였다. 2021년 4월 30일에 게시된 이후 2022년 8월 16일 15시까지 전체 조회수가 145,743회이며 댓글이 130개가 달렸다. 영상이 게

시될 당시 구독자의 수가 약 70만 명 내외였으며, 8월 16일 15시 현재 152만 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구독자 수의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 관련 유튜브 영상으로서는 고전소설 관련 유튜브 영상자료 조회수가 부족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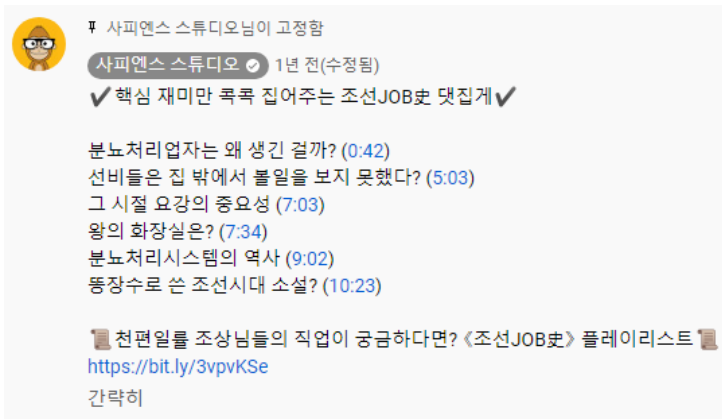


주 텍스트를 <예덕선생전>으로 하고, 『태평한화골개전』, 박제가의 『북학의』에 실린 <똥거름>, 강희맹의 <요통설>, 『진담록』에 실린 <방분(放糞)> 등을 보조자료로 삼았다. 제도권 교육 현장에서 <예덕선생전>을 읽을 때 주제로 ‘바람직한 사림의 도’ 혹은 ‘엄행수의 무실역행’ 등으로 이해하고,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인간상과 함께 인간성에 대한 긍정적 의식과 신분을 초월한 평등사상 등으로 독해하고 있다.

<예덕선생전>에 대한 기존의 독해 방법을 벗어나 생활사적인 측면을 드러냈다. <예덕선생전>의 내용에 따르면 엄행수는 분노처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영업자이다. 이 글에는 분노처리업자의 노동시간, 분노의 종류, 분노 납품 고객 등이 등장하고, 무 재배 지역(왕십리), 순무 재배 지역(뚝섬), 가지·오이·수박· 재배 지역(서대문 밖), 고추·마늘·부추 재배 지역(연

회동), 미나리 재배 지역(청과동), 토란 재배 지역(이태원) 등 18세기 한양의 채소 재배단지까지 상세하게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엄행수가 1년에 벌어들이는 연봉까지 기록되어 있다.

연암은 제도권 교육 현장에서 이해하는 주제 의식으로 글을 지었다. 그러나 필자는 생활사 특히 직업의 관점에서 〈예덕선생전〉을 독해하였고, 그 결과 18세기 한양의 분노처리 과정과 채소재배 단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이 작품임을 밝혔다. 고전소설을 서사적 특징과 작가의 문학과관으로 접근하는 대신 생활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고, 좋은 반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위의 이미지는 이 영상을 소개하는 머리글이다. 흥미로운 키워드를 제시한 후 ‘똥장수로 쓴 조선시대 소설?’이라는 표현으로 마무리하였다. 필자가 역시 영상 중에 〈예덕선생전〉을 언급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은 모두 생활사적 감상에 몰려 있다. 단 한 건의 댓글도 〈예덕선생전〉을 고전소설로 인식한 청취자는 없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 영상이 ‘역사 읽어드립니다’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

고, 그 내용 역시 생활사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소설 작품을 아이콘으로 삼고 생활문화 콘텐츠를 가미한 후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고전소설’ 혹은 ‘소설’이라는 문학적 용어를 노출하지 않더라도 고전소설의 향유층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¹⁸⁾

4. 출판을 통한 대중화

1) 이미지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학습자료와 추천 작품 및 작품집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동안 일반 대중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고전소설 분야 대중서가 그리 많이 출간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주목하는 대중서는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2015년 임치균에 의해 출간된 『고전소설 오디세이』이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응을 받지 못했다. 2020년 김풍기에 의해 출간된 『한국 고전소설의 매혹-차이와 반복이 만들어내는 탁월한 서사』¹⁹⁾ 역시 주목해 볼 만하다. 그러나 필자가 고전소설의 대중화를 위해 가장 주목한 도서는 비교적 최근 출간되어 주목을 받았던 이후남의 『요망하고 고안 것들』²⁰⁾이다.

한국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로서의 요괴를 정리한 이후남의 연구

18) 필자는 ‘장유승·김동진·홍현성’과 함께 〈추재기이〉, 『용재총화』, 『이순록』, 『어우야담』, 〈마장전〉,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동상기〉, 〈강도몽유록〉, 〈최고운전〉, 『요로원아화기』, 『금계필담』, 이옥과 김려의 전(傳) 작품, 『청성잡기』 등의 고전산문(서사)과 각 종 역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67개의 조선시대 직업을 정리하여 『조선잡(job)사』를 집필하였다. 즉, 고전소설을 아이콘으로 조선시대 생활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았다. 많은 판매 부수와 다양한 반응을 통해 고전소설의 대중화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19) 김풍기, 『한국 고전소설의 매혹-차이와 반복이 만들어내는 탁월한 서사』, 달아실, 2020.

20) 이후남, 『요망하고 고안 것들』, 놀와, 2021.

는 박사학위논문을 거쳐 최근 『한국 고전소설의 요괴』²¹⁾로 출간되었다. 학술서 출판에 앞서 학위논문으로 연구한 결과물 즉, 77편의 한국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로서의 요괴 158종을 정리한 후 그 중에 20종을 뽑아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옆의 이미지처럼 이 도서는 고전소설의 주요 캐릭터 중 요괴를 이미지화 하였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조선시대 우리 고전소설을 판화 혹은 그림으로 표현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는 일제강점기 구활자본 고전소설이 출판되면서 조잡하기는 하였지만, 내용의 핵심적인 장면을 표지로 제작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저자는 〈전우치전〉, 〈옥란기연〉, 〈윤하정삼문취록〉, 〈삼강명행록〉, 〈반필석전〉, 〈이수문전〉, 〈화산선계록〉, 〈명주보월빙〉, 〈임씨삼대록〉, 〈유이양문록〉, 〈천정가연〉, 〈삼한습유〉, 〈황장군전〉, 〈태원지〉, 〈원회록〉, 〈보은기우록〉, 〈범문정충절언행록〉, 〈명행정의록〉, 〈옥루몽〉 등을 텍스트로 하여 각 작품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요괴를 이미지화 하였다.²²⁾

저자가 들어가는 글에서 밝혔듯이 20개의 요괴를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정립한 5단계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각 편에서는 서사에서 구현된 요괴의 형상, 성격, 행위 등을 서사의 흐름대로 쉽게 설명하였다. 나아가 서사의 진행 중 발생하는 대화와 중요한 장면들은 소설 원문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실어 놓았다.

21) 이후남, 『한국 고전소설의 요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2.

22) 〈삼강명행록〉인 경우 2건의 요괴를 다루면서 20 개의 요괴 캐릭터를 19개의 작품에서 추출하였다.



옆의 이미지는 <황장군전>에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 중에 하나인 은수자를 이미지화 한 것이다. 방금 언급했듯이 요괴를 아이콘으로 작품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묘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처럼 요괴를 시각화 한 것이다. 그리고 본문 내용이 모두 끝난 후 마지막 부분에 해당 요괴가 등장하는 고전소설 작품의 사전적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하

면서 고전소설의 이미지화임을 분명히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우 구슬과 천서’부터 ‘요괴를 착하게 만드는 법’까지 고전소설 속 요괴를 둘러싼 각종 특징 20여 건을 추가하여 흥미성을 더하면서 동시에 요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요망하고 고안 것들』이 출간되자마자 많은 언론에서 주목을 하였으며 독자들의 리뷰 역시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게시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구매 후 작성하여 올리는 Klover리뷰 8개가 작성되었다.

- no**guard

2022-05-10 09:39:36

★★★★☆ 구매 유용해요

댓글 0

재미있게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 ha**k

2022-04-20 23:35:40

★★★★☆ 구매 기타

댓글 0

왜 없을까 궁금했던 우리 요괴이야기
- ki**sang

2022-03-09 09:26:02

★★★★☆ 구매 기발해요

댓글 0

좋이롭게 읽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전소설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좋구요.
- lk**027

2022-02-22 00:02:35

★★★★☆ 구매 기발해요

댓글 0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 ge**gi96

2022-02-09 23:25:25

★★★★☆ 구매 좋아요

댓글 0

이 책은 너무 좋아해요. 배우는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 더 잘 하려고 사진까지 있으니까 마음에 들어요 ^^

ir**tzk	2022-02-09 11:46:59	♥♥♥♥♥	구매	좋아요	댓글	♥ 0
현대 창작물의 원천이며 기본						
iw**hs	2022-01-11 11:28:51	♥♥♥♥♥	구매	좋아요	댓글	♥ 0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한국 요괴들에 대해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괴라고 하면 일본의 요괴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우리 고전 소설에도 다양한 요괴들이 있었다는게 놀라웠어요. 다른 요괴들 이야기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ma**zeus	2022-01-10 18:30:05	♥♥♥♥♥	구매	좋아요	댓글	♥ 0
정중한 고전소설 요괴 안내서						
da**post96	2022-01-10 10:52:28	♥♥♥♥♥	구매	좋아요	댓글	♥ 0
소재도 기발하고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ka**84	2022-01-07 20:27:39	♥♥♥♥♥	구매	좋아요	댓글	♥ 0
이토록 개성 넘치고 인간적인(?) 요괴들이라니!						

위의 이미지 중에 가장 먼저 주목할 리뷰는 세 번째이다. 특히 “다양한 고전소설에 대하여 알게 된 것도 좋구요”라는 내용이 중요하다. 구입 도서를 재미있게 읽고 있다는 사실 즉 흥미성을 느끼면서 동시에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의 고전소설을 요괴와 함께 인식하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현대 창작물의 원천이며 기본’이라는 댓글은 이러한 결과물이 바로 대중문화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함께 핵심적인 캐릭터를 이미지화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이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고 대중들에게 낯설게만 느껴졌던 고전소설을 더욱 친근하게 하였고 접근성을 높여주었으며, 나아가 고전소설의 향유층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역사적·문화적 사실과의 연결

사실 고전소설의 대중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도서는 고전소설 전공자가 아니라 한국사 전공자의 손에 의해 출간되었다. 무려 20년 동안 일반 대중들에게 꾸준히 읽히는 이병주·노대환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이 그

것이다. 이 도서는 2002년 초판이 출간된 이후 2005년 개정증보판이 출간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위의 이미지 중 첫 번째 이미지가 바로 초판 이미지다. 〈설공찬전〉, 〈전우치전〉, 〈임진록〉, 〈홍길동전〉, 〈계축일기〉, 〈박씨전〉, 〈장화홍련전〉, 〈인현왕후전〉, 〈한중록〉, 〈춘향전〉, 〈웅고집전〉, 〈허생전〉, 〈은애전〉, 〈배비장전〉, 〈홍부전〉, 〈심청전〉 등 16개 작품을 대상으로 서사적 내용과 역사적 문화적 사실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다. 물론 2005년 개정하고 증보하여 다시 출간할 때는 〈금오신화〉, 〈사씨남정기〉, 〈홍경래전〉, 〈채봉감별곡〉 등의 4편의 고전소설을 추가하였다. 저자가 책머리에서 밝혔듯이 “고전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당시의 시대 배경, 작자의 집필 의도, 역사적 허구와 사실을 평이하게 서술하여 소설을 읽는 재미와 역사를 공부하는 즐거움을 함께 선사하고”²³⁾ 있다. 다시 말하면 고전소설을 통해 조선시대의 한국사를 읽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서는 당초 청소년 잡지였던 『틴뉴스』에 연재했던 원고를 모은 것

23) 신병주·노대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돌베개, 2002, 6쪽.

이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교육용과 대중서로서의 특징을 모두 갖춰야 했다. 가장 먼저 ‘작품 해설’을 통해 다루고 있는 고전소설 작품의 총체적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어 본문이 시작되면서 소설 속 내용과 조선시대의 한국사가 절묘하게 결합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작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을 맺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 하나를 각 작품별로 추가하였다. 이처럼 고전소설을 통하여 소설 내용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는 방법은 이미 <삼국지연의>의 수용과 향유 과정에서 형성된 오래된 전통이기도 하다.

이 도서는 2002년 발간 당시부터 참신성으로 인하여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당대 매체들 역시 이 도서를 “고전소설을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들여다본 역사 교양서”²⁴⁾로 규정하였다. 일반 독자들 역시 출간 당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갔다가 남의 몸에 혼으로 들어와 저승에서 있던 경험과 원한을 기록한 ‘설공찬전’은 처음 알게됐는데 성리학이 주요이념인 조선시대에 불교문화 회복사상을 소재로 하고 시국과 국왕을 비판한 까닭에 당시 금서로 지정됐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가진 부를 나누지 않고 불효하고 승려를 괴롭히던 못된 심보 가진 사람을 비판하는 동화인줄 알았던 ‘옹고집전’은 옹고집의 입을 빌어 불교의 폐단으로 인한 불교배척론자의 목소리를 표현하고, 또 미륵신앙으로 불교의 신비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일반인의 지지를 받았던 현실을 담고 있었음도 알았다.

위의 이미지는 ‘아이스V’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감상 내용 중에 일부다.²⁵⁾ ‘아이스V’는 <설공찬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접하지도 않았던 독자였으나, 이 도서를 통해 작품의 내용뿐 아니라 의미까지 알게 되었고, 단순 동화로만 알고 있었던 <옹고집전>의 주제 의식 역시 불교 사상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24) 김우출 기자, “옛날 사람들은 과연 소설처럼 살았을까?”, 오마이뉴스, <http://omn.kr/1cjh>, 2002.09.20. 오전 1:34.

25) <https://blog.naver.com/songiluv/222082129214> (2022.08.17, 03:35)

‘아이스V’는 이 도서 감상평의 마지막을 아래 같이 마무리 하고 있다.

각 고전소설 한글 원문을 읽은 것이 아니고 그저 해설서를 읽고 있으니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각 소설 원문을 찾아 읽을 것 같지는 않다. 어쨌거나 시대를 막론하고 독자들이야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에 끌려 그저 읽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반영돼 있다는 것, 이런 소설의 힘이 무섭기도 하지만 새삼 매력 있다고 느꼈다.

정말 솔직한 고백이다. 이 블로그는 『(개정증보판)고전소설 속 역사여행』에서 다른 20편의 소설 작품을 한 편도 읽지 않았고, 앞으로 읽을 생각도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소설의 흥미성과 그 흥미성 뒤에 숨겨져 있는 주제 의식 및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고전 서사의 힘과 매력을 제대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상평들은 초판 이후 무려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꾸준히 블로그에 올라오고 있다.

<p>단지 고전소설을 읽는것이 아니라 작품속에 담긴 역사이야기를 담고있는 도서이다</p> <p>도서 안에 각 작품 내용전체가 수록된것이 아니기때문에 고전소설 내용을 읽고 싶은 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p> <p>본 도서는 고전소설이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탄생되었으니 소설 속 인물을 통해 당시 사회모습을 상세히 들여다보며 역사 속 있었던 사건을 꼼꼼해 가며 소개하고있다</p>	<p>각 작품을 소개하는 구성방법이 좋다</p> <p>작품설명</p> <p>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당시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한다(국어 자습서느낌^^)</p>	<p>작가 이야기 (허균)</p> <p>작품속 홍길동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허균을 소개하며 역사적 관련 자료를 함께 소개하고있다</p>
	<p>작품 토크아보기(사회상 중심)</p> <p>작품 전체가 수록된 것이 아니라 작품 글을 중간중간 발췌하고, 중간중간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사회모습을 알아본다</p>	<p>연사속 비슷한 사례 (별도)</p> <p>조선시대 역사속 서얼들을 소개해주고있다</p> <p>작품 마다 챗터가 나누어져 있으니 읽기 어렵지 않은 도서다</p> <p>이야기와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술술 읽혀지는 도서라 추천해본다</p>

위의 이미지는 ‘사랄라’라는 아이디를 가진 블러거가 자신의 블로그에 2022년 7월 17일 18시에 올린 글이다.²⁶⁾ 이 감상평 역시 〈홍길동전〉을 단순한 고전소설이 아니라 그 속에 많은 역사적 사실들과 관련된 요소들이 들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고전소설의 내용을 읽고 싶은 이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독자는 〈홍길동전〉 관련 역사적 사실에 관심이 있을 뿐 고전소설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의 흥미성을 통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아이디 ‘사랄라’는 대중들에게 〈홍길동전〉을 추천하는 대신 『개정증보판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을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결국 고전소설에 관심이 없었던 독자에게 고전소설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처럼 신병주·노대환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은 역사학자의 시각에서 고전소설을 설명하고, 흥미로운 고전 서사를 통해 당대의 역사적 사실과 문화를 결합시켜 고전소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 하였다.

5. 결론

필자는 위에서 고전소설이라는 키워드로 관련 분야의 인식 양상과 대중화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상에서 고전소설이라는 키워드를 통하여 연관 검색어, 연관 동영상, 관련 분야의 도서와 도서 중 베스트셀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관 검색어 분야에서 한국 고전소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춘향전’ 정도로 매우 단순하고 빈약하게 등장한다. 이미지 역시 교육자료를 제외하면 『고전소설 오디세이』 정도가 첫 화면에 등장하고 동영상 역시 교육

26) <https://blog.naver.com/ssugssugrich/222815735287> (2022.08.17, 14:00)

자료 몇 개를 제외하면 대중들이 고전소설을 감상하는 영상은 등장하지 않는다.²⁷⁾ 고전소설 관련 뉴스 역시 기관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전소설 관련 도서 역시 중고등학교 교재와 관련된 도서를 제외하면 역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관의 출판물 정도가 언급되는 정도다. 특히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8월 16일까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고전소설 관련 도서는 단 한 건도 등장하지 않는다.

둘째, 서점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전소설 관련 인식을 추정해 보았다.

그 결과 서점에서는 이미 고전소설 이론서 및 대중서가 모두 전시 목록과 서가에서 빠져 있었다. 대중들의 인식 속에서 고전소설이라는 키워드가 조금씩 지워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설문조사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전소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정도가 낮았으며, 고전소설 독서량과 경향 역시 매우 부족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조금 희망적인 것은 고전소설 관련 대중서에 대한 수요가 느껴지고 관련 분야 강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역시 적지 않았다.

셋째, 강연 프로그램과 동영상을 분석하였다. 임치균의 조선시대 왕실소설 관련 강연이었다. 수강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만족도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동영상인 경우 〈예덕선생전〉을 생활사적으로 접근한 영상 자료와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댓글을 통하여 반응을 분석하였다. 역시 고전소설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예덕선생전〉 속의 생활상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대중서 출판을 통한 대중화를 분석하였다. 이후남의 『요망하고 고안 것들』을 대상으로 고전소설의 이미지화의 양상과 이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였다. 이 출판물에 대한 적지 않은 리뷰가 온라인 상에 등장하였으며,

27) 개별 작품으로 들어갈 경우 역시 교육자료를 제외하면 그리 많지 않다. 이 부분까지 모두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고백한다.

흥미로운 요괴와 그 이미지를 통하여 다양한 고전소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들이 등장한다. 즉, 고전소설이 이미지화와 이를 바탕으로 캐릭터 개발의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어 2022년 이후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가장 성공적인 대중서로 출판된 신병주·노대환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과 이에 대한 온라인 상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특히 고전소설과 조선시대 역사 및 문화적 현상과의 연결이 주는 긍정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전소설 전공자로서 대중화에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그리 많지 않다. 앞서 밝혔듯이 대중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중서 출판 및 강연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각종 드라마, 영화, 뮤지컬, 웹툰 및 연극과 게임 등과 같은 콘텐츠 제작은 고전소설 전공자가 직접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고전소설 전공자는 이를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고전소설 전공자로서의 현실적인 역할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를 위하여 훌륭한 강연 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대중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검색되고 활용되는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고 고전소설의 이미지화와 대중들에게 흥미로운 역사·문화 콘텐츠와 고전소설의 내용을 결합시킨 대중서 출판이 필요하다. 개별 작품이 아닌 ‘고전소설’이라는 키워드가 소비되지 않는다면, 고전소설 수용의 지평을 넓힐 수 없을 것이다. 고전소설 대중화에 대한 전공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 강문중·장유승·김동건·홍현성, 『조선잡(job)사』, 민음사, 2021, 1~348쪽.
- 김우출 기자, 「옛날 사람들은 과연 소설처럼 살았을까?」, 오마이뉴스, <http://omn.kr/1cjh>, 2002.09.20. 오전 1:34.
- 김풍기, 『한국 고전소설의 매혹-차이와 반복이 만들어내는 탁월한 서사』, 달아실, 2020, 1~172쪽.
- 설성경, 「고전문학 연구의 대중화」, 『돈암어문학』 12, 돈암어문학회, 1999. 5~35쪽.
- 신병주·노대환,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돌베개, 2002, 1~290쪽.
- 엄기영, 「국문장편 고전소설 연구 및 대중화의 토대 마련을 위한 한 걸음: 국문장편 고전소설 감상사전 편찬에 대하여」, 『한국문화연구』 2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2. 325~333쪽.
- 이민희, 「2010년도 고전소설 분야 연구 동향-고전소설의 대중화 및 일반 독자와의 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24집, 국문학회, 2011. 157~198쪽.
- 이후남, 『요망하고 고얀 것들』, 놀와, 2021, 1~320쪽.
- 이후남, 『한국 고전소설의 요괴』,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2, 1~392쪽.
- 임치균, 「고전소설의 대중화 문제」, 『한국학』 25권 1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2. 209~227쪽.
- 임치균, 『고전소설 오디세이』, 글항아리, 2015, 1~432쪽.
- 정우봉, 「국문학 연구의 전문성과 대중성」, 『한국학』 22권 2호, 한국학중앙연구원, 1999. 5~30쪽.
- 정혜경,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전략」,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23~161쪽.
- 한길연, 「고전소설 연구의 대중화 방안-디지털 매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語文學』 115집, 한국어문학회, 2012. 249~287쪽.

<https://blog.naver.com/songiluv/222082129214> (2022. 08. 17, 03:35)

<https://blog.naver.com/ssugssugrich/222815735287> (2022. 08. 17, 14:00)

ABSTRACT

A Study on the popularization of classical novel
- An analysis of cases

Kang, Moon-jong

First, in the field of related search terms, it is as poor as 'Chunhyangjeon' that is directly related to Korean classical novels. Except for educational materials, about 『the classic novel Odyssey』 appears on the first screen, and as for videos, popularized videos do not appear except for educational materials. Related news is also not receiving attention except for distributing press releases. Books related to classical novels also mentioned the degree of publications of institutions that distribute press releases. In particular, from January 1, 2021 to August 16, 2022, there were no books related to classical novels on Kyobo Bookstore's best seller list. Second, in bookstores, both classical novel theory books and popular books were already missing from bookshelves. It proves that the keyword "classical novel" is gradually being erased from the public's eyes. In the survey, the degree of overall awareness of classical novels was low. The reading volume of classical novels was very insufficient, and the reading tendency was simple. However, what is hopeful is that there were many demands for popular books and lecture programs related to classical novels. Third, Lim Chi-kyun's lecture on royal novels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very well received by the students and showed very high satisfaction in the satisfaction survey. In the case of videos produced for "the Story of Yedeok Teacher", they paid more attention to life than the keyword of classical fiction. Fourth, through Lee Hu Nam's 『Monsters』, there are contents that he learned various classical novels through interesting monster and its image. This directly showed the possibility of character development based on the imageization of classical novels. Through online reactions to Shin Byung-joo and Noh

Dae-hwan's 『History Travel in Classical Fiction』 the positive effect of connecting classical novels to historical and cultural phenomena of the Joseon Dynasty could be confirmed. Through this analysis, there were not many areas where classical fiction majors could directly contribute to popularization. It was found that translating classical novels into modern languages is important, and YouTube video production, publication of a popular book, and operation of lecture programs are the most realistic methods.

Key Words

classical novel, popularization, YouTube videos, related search terms, publication in popular books, lecture programs

논문투고일: 2022.10.25.

심사완료일: 2022.11.05.

게재확정일: 2022.11.07.